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 성취간의 관계 :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정광필 · 이희영\* · 최태진\*  
(총렬중학교 · \*부경대학교 · \*중부대학교)

###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Gwang-Phil JEONG · Hee-Yeong LEE\* · Tae-Jin CHOI\*  
(Choongryul Middle School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Joongb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academic achievement. Five-hundred thirty five middle school students(male 247; female, 288)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se students completed parenting scale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Academic achievement was calculated using academic scores from language, english, mathematics and scie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ing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albeit weak. Second, influence of affective and autonomy parenting on academic achievement for both father and mother were not significant. Third,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ism were significant in only fathers' autonomy parenting. Fourth, moderating effects of collectivism were significant in fa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autonomy parenting.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pervious studies. Finally limitations were commented and future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Parenting, Individualism-collectivism

#### I. 문제 제기

학교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학업성취라 할 수 있다. 학업성취는 학생 개인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학업성취는 또한 학생의 장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학업성취는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연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업성취는 학습자의 지능, 인지양식, 창의력, 성취동기, 자아개념, 학습습관 등과 같은 개인 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참여, 부모-자녀 관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과 같은 가정 변인 그리고 교사, 또래, 사교육, 학습 환경 등과 같은 사회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Hey-Joo & Jung Eui-Hyun, 2013). 이처럼

\* Corresponding author : 010-8502-7102, hylee@pknu.ac.kr

럼 다양한 변인이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져 왔으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은 가정 변인이다 (Kwak Soo-Ran, 2006).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가는 곳이다. 자녀에게 있어 가정은 첫 번째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다. 따라서 가정 배경은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다 (Rumberger, 1995). 가정이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참여, 양육방식 등 다양하나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 양육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되는데(Becker, 1964),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지, 사회성, 자아개념, 도덕성, 정서적 안정감, 성격 등을 포함한 자녀발달의 광범위한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e Sook et al., 2002).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자율적,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 태도로 구분하였고, Baumrind(1971)는 권위적 태도, 권위주의적 태도 및 허용적 태도로 분류하였으며, Oh Seong-Sim과 Lee Jong-Seong(1982)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네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을 활용하여 그동안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외국의 경우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 Baumrind(1971)가 제시한 분류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수행된 많은 연구는 양육태도와 학업성취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육태도와 학업성취간의 관련성은 Dornbusch 등(1987)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되었다. 이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부

모를 권위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유의미한 관계는 이후 수행된 연구(예, Dehydegary, Yaacob, Juhari, & Talib, 2012; Park & Bauer, 2002; Pong, Johnston, & Chen, 2010; Roche, Ensminger, & Cherlin, 2007)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많은 국내 학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많은 연구(예, Lee Ju-Hyun, 2004)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예, Cha Mi-Tak, 2011)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초등학생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 또한 지닌다. 부모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Sim & Vuchinich, 1996). 이렇게 볼 때 이 분야의 선행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부모 양육행동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몇몇 국내 연구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이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Moon Mi-Sook, 2007; So Ok-Mi, 2003; Sim Ha-Jin, 2012; You Eun-Sook, 2006). 그러나 이들 변인들간의 구체적인 관계 양상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So Ok-Mi(2003)는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 양육척도를 사용하여 학업성취는 자율-통제와 성취-압력과는 상관성이 있었으나 수용-거부와는 상관성이 없음을 밝혔고, Sim Ha-Jin(2012)

은 거부, 애정, 과잉보호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학업성취는 애정과는 정적으로 거부와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으나 과잉보호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Dornbusch 등(1987)은 민족 집단(ethnic group)간 비교를 통해 권위적 양육 방식은 백인 미국인 학생의 학업성적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아시아계, 흑인계, 히스패닉계 미국인 학생의 학업성적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Park 과 Bauer(2002)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Dornbusch 등.(198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연구에서도 권위적 양육은 백인 학생에게서만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육방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제 3의 변인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변인으로 문화에 주목하였다. 즉, 문화가 양육방식과 학업성취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가정은 최근에 양육방식이 문화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Chao, 1994)와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양육방식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Leung et al.(1998)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이들은 3개국 비교 연구에서, 권위적 양육방식은 백인 미국 고등학생과 호주 고등학생의 학업성적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홍콩 고등학생의 학업성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는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민족 집단 간 비교 연구나 국가 간 비교 연구로는 문화적 요인의 영향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문화

적 차이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분석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틀로 1980년대 이후 문화의 영향을 고찰하는 주요 잣대로 사용되어 온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은 전통적으로 문화권이 다른 사회 및 그 성원들이 보이는 가치관, 사회적 지가, 정서, 동기, 관습, 제도 등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틀로 사용되어 왔다(한규석, 1991; Triandis, 1995). 개인주의 문화는 자율성, 독립심, 개인의 목표와 신념, 개인적 만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 집단의 원활한 결속, 정서적지지,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 대인관계, 가족의 안녕,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등을 특징으로 한다(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이 개념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Kim Eun-Jin·Lee Hee-Yeong, 2013; Park Hye-Kyung·Hong Seung-Beom, 2013; Lee Hee-Yeong·Choi Tae-Jin, 2008; Chang Su-Jie·Kim, Soo-Young·Kobayashi, 2014; Han Seong-Yeul·Lee Heung-Pyo, 1995)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갈등해결전략, 사회적지지, 사회적 유능감, 공동체 의식, 소외감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 문화에 따른 양육방식의 영향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사용하여 부모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문화의 중재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53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535명 중 남학생이 247명(46.2%), 여학생이 288명(53.8%)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196명(36.6%), 2학년 160명(29.9%), 3학년 179명(33.5%) 이었다.

### 2. 측정도구

#### 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h Seong-Sim과 Lee Jong-Seong(1982)이 제작하고, Kwak Yoon-Young(2009)이 수정한 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Oh Seong-Sim과 Lee Jong-Seong이 제작한 척도는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Kwak Yoon-Young이 4점 척도로 수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인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태도, 자율-통제 태도의 2가지 차원에 따라 각각 15개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애정-적대 양육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며,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부-애정 .86, 부-자율 .78, 모-애정 .86, 모-자율 .78이었다.

#### 나. 문화성향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가 제작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INDICOL) 척도를 Kim Ki-Beom(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수평적

개인주의·수직적 개인주의·수평적 집단주의·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을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각각 16문항)으로 묶어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개인주의 성향 .78, 집단주의 성향 .87이었다.

#### 다. 학업성취도

연구대상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시행한 학기말 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4과목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기말고사의 원점수는 학교, 학년 및 과목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가 상이하므로 개인별 점수를 모두 T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로 변환한 다음, 이들 T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먼저 기술통계량과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부와 모를 구분하여 양육태도(자율, 애정), 문화성향(개인주의, 집단주의), 양육태도×문화성향을 투입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차례로 수행하였다. 변인 투입에서는 양육태도×문화적 성향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성성을 피하기 위하여 양육태도, 문화적 성향 변인의 원점수는 모두 편차점수로 변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 조절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razier, Tix와 Barron(2004)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조절변인(즉, 문화성향인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의 평균±1표준편차 값을 기준으로 상위·하위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식을 산출하여 회귀계수(b)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투입변인 양육태도 상위 및 하위집단 각각에서 조절변

인의 수준에 따른 두 집단 간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 및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차례로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riables	M	SD
affection-hostility parenting(Fa)	3.76	.61
autonomy-control parenting(Fa)	3.59	.54
affection-hostility parenting(Mo)	3.91	.59
autonomy-control parenting(Mo)	3.48	.54
individualism	3.33	.47
collectivism	3.56	.54
academic achievement(T-score)	50.00	10.00

<Table 1>을 보면 연구대상 중학생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절대평균(3.0) 이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거나 통제적이기 보다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로 표현함). 또한 상대적으로 볼 때, 부는 모에 비하여 보다 자율적 양육태도를 지니며(부 3.59>모 3.48), 모는 부에 비해 보다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였다(부 3.76 <모 3.91). 대상자들의 문화성향 또한 절대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M=3.33)보다는 집단주의 성향(M=3.56)이 높았다.

<Table 2>를 보면 중학생들은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유사하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부애정-모애정  $r=.75$ , 부자율-모자율  $r=.64$ ).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 간의 단순상관은  $r=.14\sim.19$ 의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개인주의 및 집단주

의와 학업성취간의 관계 또한 약한 적정상관( $r=.29, r=.19$ )을 보여주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2	3	4	5	6	7
1.	.60***	.75***	.44***	.23***	.39***	.19***
2.	-	.48***	.64***	.14**	.19***	.15**
3.		-	.59***	.19***	.40***	.16***
4.			-	.10*	.22***	.14**
5.				-	.49***	.29***
6.					-	.19***
7.						1.00

Note. 1=affection(f), 2=autonomy(f), 3=affection(m)  
4=autonomy(m), 5=individualism, 6=collectivism  
7=academic achievement  
\* $p<.05$ , \*\* $p<.01$ , \*\*\* $p<.001$

#### 2.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및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아래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 및 자녀의 문화성향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인주의 성향,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및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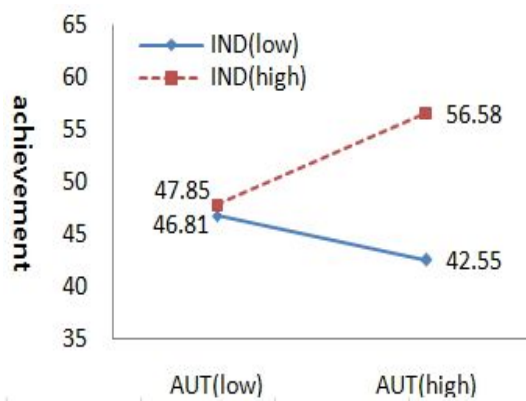
부와 모의 자율·애정 양육태도, 자녀의 개인주의 성향(1단계 투입변인), 자율×개인주의 성향, 애정×개인주의 성향(2단계 투입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보면 부와 모 모두에서 애정 및 자율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sim.09, p>.05$ ). 또한 부의 애정·자율 양육태도와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효과, 모의 애정·자율 양육태도와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부의 자율 양육태도와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 p<.01$ ).

<Table 3> Influence of parenting on academic achievement and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ism

	Step	Input Variables	$\beta$	$R^2$	$\Delta R^2$	$F$
Father	1	Love Autonomy Individualism	.08 .07 .26***	.101		19.80***
	2	Love×Individualism Autonomy×Individualism	-.07 .12*	.110	.010	2.69
Mother	1	Love Autonomy Individualism	.07 .08 .27***	.100		19.58***
	2	Love×Individualism Autonomy×Individualism	-.06 .09	.105	.005	1.56

\* $p < .05$ , \*\* $p < .01$ , \*\*\* $p < .001$



[Fig. 1] Regression lin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fathers' autonomy parenting × individualism

[Fig. 1]은 부의 자율 양육태도와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효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고저 집단에 따라 자율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점수간의 회귀선을 그린 것이다. 그 결과, 개인주의가 높은 집단에서는 회귀계수의 크기가 유의하였으나 ( $b=.282, p<.05$ ) 낮은 집단에서는 회귀계수의 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b=-.189, p>.01$ ). 부의 자율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두 집단간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개인주

의가 높은 집단의 경우 부의 자율 양육태도가 높은 집단이( $M=56.58$ ) 자율 양육태도가 낮은 집단 ( $M=47.85$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t=3.68, p<.01$ ), 개인주의가 낮은 집단의 경우 부의 자율 양육태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점수 차이가 없었다(각각  $M=42.55, M=46.81, t=1.39, p>.05$ ).

나.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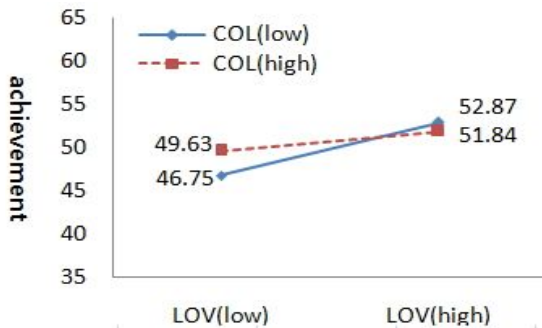
부와 모의 자율·애정 양육태도, 자녀의 집단주의 성향(1단계 투입변인), 자율×집단주의 성향, 애정×집단주의 성향(2단계 투입변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보면 부와 모 모두에서 애정 및 자율 양육태도는 <Table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6 \sim .09, p>.05$ ). 또한 모의 애정·자율 양육태도와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부의 애정 양육태도와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beta = -.10, p<.05$ )와 부의 자율 양육태도와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beta = .10, p<.05$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e of parenting on academic achievement and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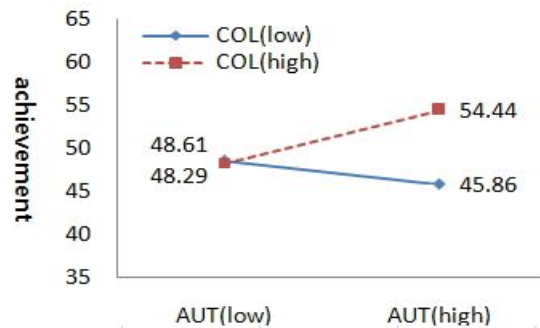
	Step	Input Variables	$\beta$	$R^2$	$\Delta R^2$	F
Father	1	Love Autonomy Collectivism	.09 .07 .14**	.054		10.09***
	2	Love×Collectivism Autonomy×Collectivism	-.10* .10*	.062	.008	2.38
Mother	1	Love Autonomy Collectivism	.06 .08 .15**	.049		9.14***
	2	Love×Collectivism Autonomy×Collectivism	-.06 .10	.055	.006	1.67

\* $p<.05$ , \*\* $p<.01$ , \*\*\* $p<.001$



[Fig. 2] Regression lin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fathers' affective parenting × collectivism

[Fig. 2]와 [Fig. 3]은 차례로 부의 애정×집단주의 성향, 부의 자율×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효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고저 집단에 따라 애정 및 자율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점수간의 회귀선을 그린 것이다. 그 결과, [Fig. 2]에서는 집단주의가 높은 집단( $b=.043$ ,  $p<.05$ ) 및 집단주의가 낮은 집단( $b=.150$ ,  $p>.05$ ) 모두에서 회귀계수의 크기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Fig. 3]에서는 집단주의가 높은 집단에서는 회귀계수의 크기가 유의미하며 ( $b=.224$ ,  $p>.05$ ), 낮은 집단에서는 회귀계수의 크기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b=-.161$ ,  $p>.01$ ). [Fig. 3]에서 부의 자율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두 집단간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Fig. 3] Regression lin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fathers' autonomy parenting × collectivism

보면, 집단주의가 높은 집단의 경우 부의 자율 양육태도가 높은 집단이( $M=54.44$ ) 자율 양육태도가 낮은 집단( $M=48.61$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t=1.98$ ,  $p<.05$ ), 집단주의가 낮은 집단의 경우 부의 자율 양육태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점수 차이가 없었다(각각  $M=45.86$ ,  $M=48.29$ ,  $t=.76$ ,  $p>.05$ ).

#### IV.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봄에 이러한 관계에서 중학생의 문화성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간

단히 요약하고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낮은 정적상관으로 단지 3%내외만의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중학생의 자녀의 문화성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개인주의 성향은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집단주의 성향은 부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각각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영향력의 정도는 상호작용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첫째,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불일치를 보인다(예, Cha Mi-Tak, 2011; Lee Ju-Hyun, 2004). 본 연구의 결과는 일견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진술한다면 위의 세 가지 모든 유형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변인으로써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지만, 특정한 중재변인에 따라 영향력의 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일방적이기 보다는 조절 혹은 중재변인에 따라 영향이 활성화되거나 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아래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의 진술 후에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문화성향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부와의 관계에는 학생들의 문화성향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으나 모와의 관계에서는 문화성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문화성향과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에

서 나타난 결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부와 모의 영향의 차이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 이는 자녀가 자기 주관적이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개인주의적 문화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애정적 양육태도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 스스로 생각을 하게하고 책임지게 하는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집단주의 성향이 부의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은 연구자들이 볼 때 기대된 결과와 기대치 않은 결과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먼저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낮은 경우에 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기대된 결과이다. 자녀가 집단주의적 성향이 낮을 경우, 부는 자율이라는 양육방식보다는 자녀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집단주의적 가치와 특징들 즉 상담과 칭찬, 격려, 친밀감을 드러내 보이는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 더 지지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높을 경우,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는 것은 기대치 않은 것이었다. 한 가지 가설적 해석은 ‘자녀가 집단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계된 일차적인 지지자원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자녀의 집단주의 성향 자체가 높아 가족이나 내집단에 대해 소속감이나 친밀감이 이미 충분히 높다고 한다면, 이때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니라 자율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가설적 해석은 연구자의 추론일 뿐이다. 관심 있는 후속 연구자에 의해 검증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모의 양육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서 조절변인으로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가 아니라 부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Lee Mi-Jung, Doh Hyn-Sim과 Chee Yeong-Kyung(2011)은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연구하였는데, 이 때 태도적, 정서적 및 기능적 자율성 모두에서 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oon Mi-Sook(2007)의 연구에서도 부의 양육태도가 모의 양육태도보다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더 강력한 상관을 보였으며, Kim Mi-Young(2008)의 연구 역시 모의 양육태도보다 부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와 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부의 영향력이 우세한 것은 이는 일반적으로 모가 아동을 가정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McCormick & Kennedy, 1994), 부는 가정 밖의 외부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Dekovic & Meeus, 1997)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가 지니는 문화성향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부의 양육태도와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집단별 회귀식을 산출한 경우에 다수의 분석에서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ex, Koh Eun-Young & Seo Young-Seok, 2012), 이는 분석 방법의 특성상 ±1 표준편차 내에 있는 68%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통계적 검증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

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표집인원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표집대상은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었다. 반복연구의 수행시 가능한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개인주의-문화주의 문화성향을 조절변인으로 두어 연구하였으나 여타의 변인(예, 사회적 유능감)을 첨가하여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개인주의 성향은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집단주의 성향은 부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각각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영향력의 정도는 상호작용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 References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pt. 2), 99~102.
- Becker, G. S.(1964).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sell Sage.
- Cha, Mi-Tak(2011).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nurturing attitude as perceived by their child in high school education, th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Hansin University.
- Chang, Su-Jie · Kim, Soo-Young & Kobayashi, E.(2014).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2), 1~27.
- Chao, R.(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20.
- Dehyadegary, E. · Yaacob, S. N. · Juhari, R. B. &

- Talib, M. A.(2013). *Asian Social Science*, 8(1), 156~160.
- Dekovic, M. & Meeus, W.(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163~176.
- Dornbusch, S. M. · Ritter, P. L. · Leiderman, H. P. · Roberts, D. F. & Fraleigh, M. J.(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Frazier, P. A. · Tix, A. P. & Barron, K. E.(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Han, Gyu-Seog(1991). A review of the cross-cultural research on the theor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10(1), 1~19.
- Han, Seong-Yeul & Lee, Heung-Pyo(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lienation and individualistic-collectivistic tenden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2(1), 113~129.
- Kim, Eun-Jin & Lee, Hee-Yeong(2013). Gender, cultural disposition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5(1), 181~191.
- Kim, Ki-Beom(1996). Mor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group-outgroup distinction: Cross-cultural analysis, Chung-Ang University.
- Kim, Mi-Young(2008). Relation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Koh, Eun-Young & Seo, Young-Seok(2012). Stepfamily adjustment and stress of stepfamily adolescents: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boundary ambiguity on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4(2), 397~419.
- Kwak, Soo-Ran(2006). Determinants of academic achievement o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2), 1~29.
- Kwak, Yoon-Young(2009).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college students' financial independenc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Hee-Yeong & Choi, Tae-Jin(2008). Child rearing attitud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16, 371~391.
- Lee, Hey-Joo & Jung, Eui-Hyun(2013). An analysis of determining factors for academic achievement by using data min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2), 5~18.
- Lee, Ju-Hyun(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hildren's learning stress, attitudes and performanc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Lee, Mi-Jung · Doh, Hyun-Sim & Chee, Yeong-Kyung (2011). The effects of paternal and maternal control on self-esteem in school-age boys and girls: The mediating role of autonom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5), 67~84,
- Lee, Sook(2002). Parent education, Seoul: Hakjisa.
- Leung, K. · Lau, S. & Lam, W. L.(1998).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A cross-cultur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4, 157~172.
- McCormick, C. Be.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Moon, Mi-Suk(2007).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s,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Oh, Seong-Sim & Lee, Jong-Seong(1982).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 child rearing attitude and affective traits, Korea Research Institute in the Behavioral Sciences.
- Park, H. & Bauer, S.(2002). Achievement in adolescents parenting practices,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3(4), 386~396.
- Park, Hye-Kyung & Hong, Seung-Beom(2013). Cultural self-orientation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1), 125~150.
- Pong, S. · Johnson, J. & Chen, V.(2010). Authoritarian parenting and Asian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Insights from the US and Taiwan, *International*

-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34(1), 62~72.
- Roche, K. M. · Ensminger, M. E. & Cherlin, A. J. (2007).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outcomes among African and Latino families living in low income, *Journal of Family Issue*, 11(23), 882~909.
- Rumberger, R. W.(1995).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s and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 583~625.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226~235.
- Sim, H. & Vuchinich, S.(1996). The declining effects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5), 445~448.
- Sim, Ha-Jin(2012).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So, Ok-Mi(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 C. · Bontempo, R. · Villareal, M. J. · Asai, M. & L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4, 323~338.
- You, Eun-Sook(2006). A study of the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Sookmyong University.
- 
- 논문접수일 : 2014년 07월 0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8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8월 08일